

찬란한 'V12' ... 호랑이들, 한국시리즈를 지배하다

1983 해태 - 'KS 불패' 신화의 시작

MBC 청룡 상대 '4승 1무'
MVP 김봉연 0.375·1홈런 8타점 4득점



김응용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본격적인 도약을 시작했다. 전기리그 1위로 한국시리즈에 첫 진출한 뒤 MBC 청룡에 4승 1무로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시리즈 불패 신화'의 시작을 알렸다. 금남로에 우승 카퍼레이드가 펼쳐졌다.

1986 해태 - '까치' 김정수 날개 펴다

삼성라이온즈 상대 '4승 1패'
MVP 김정수 1·3·5차전 승리투수



정규리그 1위 해태 타이거즈와 플레이오프를 통과한 삼성 라이온즈와의 승부. 김봉연·김성한·김종모·김일권 등 '까치 왕조'에 '국보 투수' 선동열이 맹활약을 했다. 시리즈 사나이 '까치' 김정수가 3승을 올리면서 MVP가 됐다.

1987 해태 - 김준환 동점·역전 홈런포

삼성라이온즈 상대 '4승 무패'
MVP 김준환 0.500·3차전 동점·4차전 역전홈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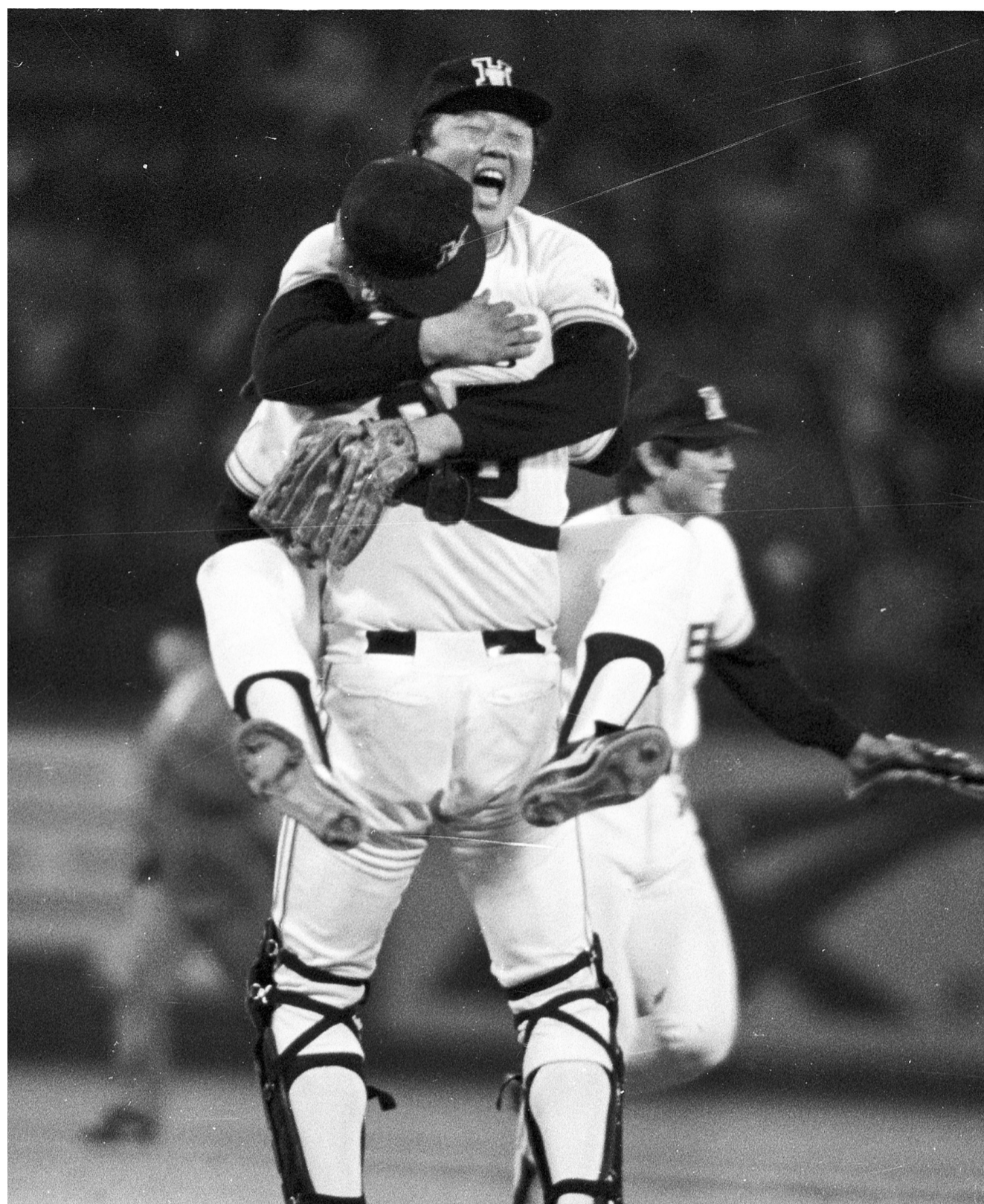
해태 타이거즈는 정규리그 2위를 차지한 뒤 플레이오프에서 OB를 꺾고 한국시리즈 진출했다. 전·후반기 통합 우승팀 삼성을 상대로 4승 무패 완승. 선동열·한대화·이순철·차영화 등의 활약으로 프로야구 사상 첫 KS 2연패를 달성했다.

1988 해태 - '꽃돼지' 문희수 맹활약

빙그레 이글스 상대 '4승 2패'
MVP 문희수 3차전 완봉승·6차전 완투승



해태는 전기리그와 후기리그 모두 우승해 한국시리즈에 직행했다. 특유의 겁쟁유니폼을 입고 우승한 시리즈. 1차전에서 삼진 14개를 잡으며 승리투수가 된 선동열이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자 문희수가 2승 1세이브로 시리즈를 이끌었다.



1986년 한국시리즈 5차전. 삼성 라이온즈에 4승 1패로 우승을 확정지은 뒤 마무리 투수 선동열이 포수 김무중과 포옹하며 포효하고 있다.

/글=유재관 기자 jkyou@kwangju.co.kr·사진=광주일보 DB 자료

1989 해태 - 해태 4연패·박철우 맹타

빙그레 이글스 상대 '4승 1패'
MVP 박철우 0.377 18타수 8안타



단일시즌 체제의 첫 해. 정규리그 2위를 차지한 해태는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선동열을 앞세우고도 0-4로 패한 뒤 4연승을 거둬 4연패에 성공했다. 18타수 8안타의 맹타를 휘두른 박철우가 MVP를 차지했다.

1991 해태-공격형 포수 '노지심' 등장

빙그레 이글스 상대 '4승 무패'
MVP 장재근 0.467 7안타 8타점



전년 한국시리즈 진출에 실패한 해태는 정규시즌 79승, 승률 0.647로 시즌 전체를 지배했다. 투수 선동열·조계현·이강철, 타자 김성한·한대화·홍현우 등 결출한 선수들이 빙그레를 4승 무패로 석아웃 시켰다.

1993 해태 - '바람의 아들' KS 휘젓다

삼성 라이온즈 상대 '4승 1무 2패'
MVP 이종범 4타점 3득점 7연속 도루



조계현·이대진 선발에 선동열 마무리로 '투수 왕국'을 구축한 해태는 타선에 신인 이종범이 등장해 맹타와 도루로 삼성의 내야를 흔들었다. 이종범은 그린라이트를 부여 받아 3경기에서 무려 7개의 도루로 승리를 이끌었다.

1996 해태-잠수함 이강철 '강철 매직'

현대 유니콘스 상대 '4승 2패'
MVP 이강철 2승 1S·16이닝 1자책



막강 현대 유니콘스와 '용호상박'의 대결. 홍현우·최해식의 홈런포로 1차전을 승리한 해태는 4차전에서 현대 정명원의 노히트노런의 수모를 당한 뒤 절치부심. '잠수함' 투수 이강철의 눈부신 호투를 바탕으로 힘겹게 승리했다.

1997 해태 - 이종범이 다했다

LG 트윈스 상대 '4승 1패'
MVP 이종범 3홈런(3차전 연타석 홈런)



'이종범 1명 대 LG 트윈스 전원'이라 불렀을 정도로 이종범이 공·수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투수 김상진이 5차전 선발로 나와 한국시리즈 최연소 완투승을 기록했고, 해태 타이거즈 통산 9번째 우승. MVP는 당연히 이종범이 차지했다.

2009 KIA - "끝내줬다 나지완"

SK 와이번스 상대 '4승 3패'
MVP 나지완 2홈런·7차전 끝내기 홈런



로페즈·구동수·양현종·윤석민 등 최강 마운드를 구축한 KIA는 무난히 우승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7차전까지 가는 대접전을 펼쳤다. 무등산 지왕봉의 정기를 이어받은 나지완이 시리즈 끝내기 홈런을 터뜨렸다.

2017 KIA - 양현종 '양 손'에 MVP

두산 베어스 상대 '4승 1패'
MVP 양현종 2차전 완봉승·5차전 세이브



포스트 시즌 단골팀들의 한국시리즈 첫 대결. 2차전에서 양현종이 완봉승을 거둬 시리즈 분위기를 돌려놓았고, 5차전에서 이범호가 만루홈런으로 승리를 결정지었다. 정규시즌 MVP 양현종이 시리즈 MVP까지 차지했다.

2024 KIA-'작은 거인' 히어로 등극

삼성라이온즈 상대 '4승 1패'
MVP 김선빈 0.588 17타수 10안타



KIA는 시즌 87승을 올려 한국시리즈 직행했다. 챔스필드에 폭우가 내려 사상 첫 서스펜디드로 2박3일에 걸친 1차전을 5대1로 승리. 네일의 스위퍼와 김태군의 만루홈런, 김선빈의 10안타 맹타로 삼성을 꺾고 역사적인 V12를 달성했다.